

## 성전에 걸맞은 삶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도 제법 쌀쌀하고 하나둘 낙엽도 떨어지는 걸 보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교회의 달력인 전례력에서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있는 다음 주로 한 해가 마무리 되고,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때쯤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갑자기 복음 내용이 삭막해진(?) 것은 바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날 표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대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다가 독립전쟁을 일으켰지만 참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 제국은 유다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처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성전은 오늘까지 재건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대성전에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 놓고 하느님을 거기에 가둬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하느님 당신은 거기 계시야만 합니다.' 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집을 지어 하느님께서 거기에 머무시도록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그들의 믿음은 그러하였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여좌요 땅이 당신의 발판' (이사66, 1)인 하느님께서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 대성전이나 우리 본당의 성전 건물, 그리고 우리 안에도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도 계시고 심지어 하느님을 부정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기도 하십니다. 코린토 2서의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궁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궁전인 우리 안의 마음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느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해 놓고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받아 집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느님 대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 하느님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시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순간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증언할 적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위해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을 거슬러 진리를 추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는 우리

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지 왜 불편하게 사느냐고, 즐겁게 살지 왜 힘들게 사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어려운 주변 이웃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이를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제정된 날입니다.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에는 특히나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직자와 다르게 평신도는 세속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세속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평신도의 삶이며, 그 삶은 평신도 선교사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면 개신교의 선교사를 먼저 떠올리지만, 천주교 역시 반세기 넘게 평신도 선교사를 묵묵히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평신도 선교사는 각 본당 사목회장이나 총무를 비롯해 예비신자 교육 담당과 전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특히 경찰과 군인, 오지 사목 등 성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워 한국 천주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양성을 위해 한국 천주교는 전국에 7개 교리 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종신부로 활동하던 조인원 신부님께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주교에도 선교사가 필요함을 절감해 1958년 10월 20일 경기도 가평에 설립한 정지신학원이 가톨릭 교리 신학원의 모태였습니다. 1959년 단 2명의 평신도 입학생을 맞아 2년 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던 신학원은 1962년 서울대학교 산하 교육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8년까지 총 5497명의 학생이 교리신학원에 입학해 4104명이 졸업하였고 그 가운데 3602명이 평신도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 전국 각 교구 기관,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과정의 교리교육학과와 종교교육학과로 구성된 신학원은 지난 50년간 평신도 선교사를 한국교회에 공급하는 숨은 기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다 함께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라납니다. 돌로 지은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 깨끗이 청소하고, 부서지거나 파손된 곳이 있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니 더럽혀지거나 파손되지 않게 성전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각자가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한데 모여 평신도가 세운 한국 천주교회를 영원히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